전법 일기

꽃이 마음을 치유하다

불교에서 꽃은 수행과 장엄, 찬탄을 상징하며 '만행화(萬行花)'라 불린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오랜 인고(忍苦)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도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꽃에서 배운다. '세계일화 만생일가(世界一花 萬生一家)'란 말처럼 세상은 하나의 꽃이며, 모든 생명은 한 가족이라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

부처님의 생애에도 꽃의 이야기가 깊게 스며 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일곱 걸음을 내디딜 때는 땅에서 연꽃이 솟아올라 탄생을 축복했다. 또한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드셨을 때, 가섭 존자가 미소로 화답해 모든 법문을 대신했다는 '염화미소'의 일화처럼, 꽃은 불교의 지혜와 마음을 상징적으로 전해 왔다.

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없이 곁에서 위로가 되어 주는 벗과 같다. 또 꽃 한 송이에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래서 꽃을 활용한 원예치료는 장애인·노인·환우 등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중요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같은 꽃을 도반 삼아 꽃 문화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자 원예치료를 하게 됐다. 청각장애인들과의 수업 시간, "우리가 만든 꽃바구니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에게 선물하자"고 말했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해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 속에서 미워했던 마음의 벽이 이미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고 마음도 살며시 바뀌는 듯했다. 저마다 가장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꽃의 높낮이와 색을 조화롭게 맞추다 보니, 어느새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손끝만 고요하게 움직이며 꽃바구니가 완성되고 있었다. 완성된 꽃바구니를 바라보며 그들은 오늘 작품이 가장 예쁘다며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전송했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사랑과 미소가 번졌다.

원예치료는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수업 초반에는 완성한 꽃바구니나 꽃다발 등을 집으로 보내면,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정말 우리 딸이, 우리 엄마가 만든 꽃바구니가 맞느냐"며 확인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어느새 엄마가, 딸이 전문가 수준이 됐다며 칭찬하는 이들도 많았다. 엄마의 실력을 인정한 딸이 선생님께 드릴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기뻐하던 이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이처럼 원예치료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마음 치유의 힘이 있다. 아울러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 성취감과 자부심, 만족감이 작은 꽃바구니 안에 담긴다. 또 마음속 깊이 숨어 있던 작은 희망의 꽃씨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며 세상도 조금씩 향기로워지는 듯하다. 앞으로도 원예치료가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며, 꽃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12월, 마음의 금식

을사년 한 해가 흘러 12월이 마지막 잎새처럼 금방 떨어질 것 같다. 흘러가는 세월을 어찌 붙잡을 수 있으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해마다 마지막 달력 앞에서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 그래서 후회를 씻어 내고 새해를 알차게 맞이하고자 연말에는 3일 금식을 하곤 한다.

금식 첫날과 둘째 날은 마음이 제법 맑아지고 경건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부터는 허기진 배를 달래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고대한다. 오후쯤이면 머릿속이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찬다. 금식이 끝나면 전복죽을 먹을까, 갓 지은 흰밥에 소고기뭇국을 먹을까?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음식을 탐하지 않았을 것이다. 억지로 절제하는 행위가 오히려 식탐을 부풀린다. 억지 금식은 경건한 수행이 아니라 집착의 또 다른 모양일 뿐이다.

석가는 29세에 출가하여 일식(一食)하며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가 되었다. 출가란 어른이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의 세계를 마주하는 일이며,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실상을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석가의 일식이란 단순히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다. 석가는 밥맛을 잃어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먹었던 궁전의 산해진미가 정신을 탁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자각한 후 더는 기름진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금식이나 일식의 참뜻은 억지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저절로 자유로워진 마음의 변화다.

석가는 가슴뼈가 등 뒤에 닿을 만큼 여위어 갔다. 매일매일 몸 안의 번뇌를 비워냈다. 일식은 육체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을 씻는 수행이었다. 석가는 드디어 새벽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마음을 덮었던 무명(無明)이 걷히며 온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었다.

금식을 하며 우두커니 앉아 있다고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가부좌를 틀어 조용히 앉아 있다고 저절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옛날 마조 스님이 부처가 되겠다며 몇 해를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문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고 내다보니 남악 대사가 깨진 기왓장을 돌에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스님, 무엇 하려고 기왓장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마조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기왓장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남악이 대답했다.

"젊은이, 그렇게 앉아만 있어서 부처가 될 것 같은가?"

형식적인 금식이나 좌선은 기왓장을 가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변화다. 올해 연말에는 육체의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금식을 하려 한다.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무명의 어둠을 걷어 내면 부처님의 지혜가 흘러들 것이다.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리라.

〈작가〉

기자칼럼

20년 반복된 개발 논리, 해법은 시민의식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행정이 바뀌고 사업 주체가 달라져도 개발 논리는 새로운 명분을 달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경관 훼손, 생태계 파편화, 안전성 부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지만, 개발을 향한 욕구는 집요하게 되살아났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이 사업은 수차례 중단됐음에도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가?"이다. 단순히 개발을 추진하는 힘이 강해서만이 아니다. 이를 견제할 감시 체계와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는 훼손형 개발을 줄이고 보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런 국제적 흐름이 지역 개발 논리 앞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불산은 영남알프스 생태 축을 이루는 자연 자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도사와 연결된 수행 환경이다. 이 가치를 지키는 일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반복되는 개발 시도 속에서도 "환경·경관·안전성 어느 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통도사와 불교계가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 온 이유 역시 수행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다.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개발 시도는 매번 재검토됐고, 자연이 겪은 위험도 사회적 의제로 계속 떠오를 수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노력에 시민의 눈과 관심이 더해져 지속적인 수호 신장의 힘으로 자리 잡는 일이다.

불교의 생명관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일깨운다. 개발 논리가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시민적 감시와 자연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불자들의 지속적 의식이 필요하다.

세계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준으로 자연과 생태를 우선시하는 시대에, 신불산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공동체의 관심이 함께 모일 때, 신불산은 비로소 20년간의 개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